

Reconstructing Social Contract Theory through Judgemental Philosophy: The Return of Meaning and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Community

Author: Jinho Kim, llama@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construct traditional social contract theory through the original theoretical framework of Judgemental Philosophy. Whereas existing social contract theories have primarily explained the legitimacy of state and social order centering on concepts such as reason, natural rights, and agreement, this paper applies the core structures of Judgemental Philosophy—the Pre-Judgemental Field (PJF) and the Judgemental Triad (Constructivity, Coherence, Resonance), along with key stages of the "Enhanced Ten-Step Model of Judgemental Philosophy" (particularly S9: Inter-subjective Resonance, S10: Normative Codification & Transmission)—to deeply analyze the fundamental motivations for social contract, its formation process,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problem of securing ongoing legitimacy.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tivation for social contract originates from a fundamental drive to overcome the 'Indeterminacy' of the PJF and secure stable 'Resonance'; that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is a process of co-constructing meaning through S9's inter-subjective resonance; and that the resulting state is a judgemental structure institutionalized via S10's normative codification. Furthermore, it reveals that the legitimacy of the social contract depends on whether the community can continuously provide its members with meaningful Coherence and Resonance. This approach offers a new structural understanding of social contract theory and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tend the explanatory power of Judgemental Philosophy to politico-philosophical discussions.

1. 서론: 왜 다시 사회계약인가? 판단철학의 새로운 조명

사회계약론은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되어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서구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이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시민적 의무의 근거를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에서 찾으려는 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회계약론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연 상태 그대로 향유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혼란과 불안(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고,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권리를 양도하고 사회적 규칙과 권위에 복종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은 종종 그 계약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합리성'을 과도하게 전제하거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심리적, 사회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한, 계약 이후 사회 질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설명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Judgemental Philosophy라는 새로운 이론적 렌즈를 통해 이러한 사회계약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그 구조적 기반과 작동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단철학은 인간의 판단 행위가 단순히 이성적 계산을 넘어, 세계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고(Constructivity), 내적·외적 일관성을 유지하며(Coherence), 그 의미가 주체에게 정서적, 실존적으로 되돌아오는(Resonance) 복합적인 구조적 과정임을 밝힌다. 특히 판단철학은 판단 이전의 근원적 조건으로서 PJF(Receptivity, Affectivity, Indeterminacy)를 상정하고, "향상된 판단 철학 10단계 모델"을 통해 감각 입력에서부터 사회적 규범 형성에 이르는 판단의 전 과정을 구체화한다.

본고는 이러한 판단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적용하여, 사회계약이 체결되는 근원적인 동기가 PJF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명(Resonance)'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근원적 추동력에서 비롯됨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계약의 형성 과정은 10단계 모델의 S9(상호주체적 공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공동 구축 과정이며, 그 결과로서의 국가 및 사회 규범은 S10(규범적 부호화 및 전파) 단계를 통해 제도화된 판단 구조임을 논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약의 지속적인 정당성은 그 사회 시스템이 구성원들에게 Coherence 있는 질서와 긍정적인 Resonance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철학적 재구성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사회계약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이해를 제공하고, 판단철학의 설명력을 정치철학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판단철학의 핵심 구조: PJF, Judgemental Triad, 그리고 Resonance의 추동력

판단철학은 의미있는 판단이 성립하기 위한 근원적인 구조적 조건을 탐구한다. 그 핵심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자리한다.

- **Pre-Judgemental Field(PJF):** 판단이 발생하기 이전의 존재론적, 실존적 기반으로,

Receptivity, Affectivity, Indeterminacy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Receptivity는 세계의 자극에 열려 있는 능력, Affectivity는 원초적인 정서적 반응 능력, 그리고 Indeterminacy는 세계의 모호성이자 판단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조건이다. 특히 Indeterminacy는 본 논문의 사회계약론 논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 **Judgemental Triad(JT):** 의미있는 판단이 가능하기 위한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구조적 축이다.
 - **Constructivity:** 경험과 대상에 의미있는 형태를 부여하고 상징적, 개념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 **Coherence:** 구성된 의미들을 내적, 외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정합적인 질서 속에 위치시키는 능력.
 - **Resonance:** 형성된 판단과 의미가 주체, 타자,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 있는 연결을 맺고 의미를 되돌려받으며 순환하는 능력.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의미의 귀환(return of meaning)'이라는 구조적 순환을 의미하며, 판단에 현실성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 **Resonance의 추동력:** 최근의 논의("The Architecture of Resonating Meaning")에서 Resonance는 단순히 판단의 결과나 한 요소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현재 이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Constructivity)하고, 이를 더 포괄적인 정합성(Coherence) 체계 속에 통합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추동력(drive)' 또는 '지향성(orientation)'으로 제시되었다. 이 추동력은 PJF의 Indeterminacy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의미있는 세계 이해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연결된다.

2.2. "향상된 판단 철학 10단계 모델"의 주요 관련 단계

판단철학 10단계 모델은 이러한 핵심 개념들이 구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사회계약론 재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S9: Inter-subjective Resonance:** 둘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조율하고, 정서적 공감과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는 단계. 뇌간 신경 동기화(Inter-brain neural synchronization)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지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계약 형성의 미시적 기반을 이룬다.
- **S10: Normative Codification & Transmission:** 집단적 합의나 공유된 가치가 법률, 제도, 관습, 문화적 서사 등의 형태로 객관화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파되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과정. 이는 사회계약의 결과물이 사회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2.3. 사회계약론의 일반적 구조

사회계약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 **자연 상태 (State of Nature):**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가상적 또는 실제적 상태. 종종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되지만, 생존의 불안정성이나 권리 보호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예: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로크의 "불편한 상태").
- **계약의 동기 (Motivation for Contract):**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필요성.
- **합의 또는 동의 (Agreement or Consent):**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권리를 양도하거나 공동의 규칙을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과정.
- **주권 또는 통치 권력의 형성 (Formation of Sovereignty or Governing Power):** 합의를 통해 공동의 규칙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할 권위체가 설립됨.
- **계약의 목표 및 조건:** 안전 보장, 권리 보호, 공공선 증진 등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예: 통치자의 의무, 시민의 복종 등).

3. 판단철학으로 본 사회계약론의 재구성

3.1. 계약의 동기: PJF의 Indeterminacy와 Resonance 추동력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은 계약의 동기를 주로 이성적 계산이나 자기 보존 욕구에서 찾았다. 그러나 판단철학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 **자연 상태 = 극도의 Indeterminacy와 Resonance 실패:** 판단철학적 관점에서 '자연 상태'는 PJF의 Indeterminacy가 극대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의도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자신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태는 개인에게 심각한 존재론적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Constructivity(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Coherence(일관된 사회적 질서나 예측 가능한 관계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Resonance(타인과의 신뢰, 소속감, 안전함의 느낌 부재)를 경험하기 극히 어렵다. "The Drive to Judge the Unjudgeable" 논문에서 논의된 것처럼, 인간은 의미의 부재나 붕괴에 직면했을 때 Coherence를 보존하고 Resonance를 확보하려는 강박적인 요구를 가진다. 자연 상태의 Indeterminacy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좌절시키는 조건이다.

- **Resonance 추동력으로서의 계약 동기:** 따라서 사회계약을 맺으려는 동기는 단순히 생명 보존이라는 소극적 이유를 넘어, 이처럼 극심한 Indeterminacy와 Resonance 실패 상태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Coherence),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전체와 의미있는 관계(Resonance)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근원적인 'Resonance 추동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되돌려받기를 갈망하는 존재("The Being That Judges")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은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발현이다.

3.2. 계약의 형성: S9을 통한 합의와 의미의 공동 구축

사회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 상호 이해, 그리고 최종적인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판단철학 "향상된 10단계 모델"의 S9 단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의미의 공동 구성 (Co-construction of Meaning):** 계약 과정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표현하고 교환한다 (S8 행동 실행의 일부).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동의 문제(자연 상태의 위험)를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건설)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과 제도의 의미를 함께 구성(Constructivity)해 나간다.
- **상호 조율과 이해 (Mutual Coordination and Understanding):** S9 단계에서 "참여자들 간의 의미가 상호 조율되고, 정서적 전염이나 공감에 일어나며, 공동의 이해가 형성되거나 혹은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 사회계약 협상 과정은 바로 이러한 상호 조율과 이해, 그리고 갈등 조정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서로 다른 의견과 요구가 충돌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차 공동의 기반(shared Coherence)을 찾아가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적 이해(intersubjective Resonance)를 높여간다.
- **합의 도달과 집단적 Resonance:** 성공적인 계약은 참여자들이 제안된 규칙과 권위 구조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이루어진다. 이는 S9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주체적 Resonance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집단적 Resonance가 바로 계약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리적, 사회적 기반이 된다. ("Frequency-Dependent Inter-Brain Synchrony..." 나 Ren et al., 2024 등의 연구에서 시사하는 뇌간 신경 동기화는 이러한 상호 이해와 합의 형성의 신경생리학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3.3. 계약의 제도화: S10과 판단 구조의 사회적 확장

S9 단계를 통해 도달한 합의와 공유된 의미는 **S10** 단계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과 제도로 객관화되고 지속성을 갖게 된다.

- **법률 및 제도의 형성:** 사회계약의 내용(권리, 의무, 통치 구조, 분쟁 해결 절차 등)은 헌법, 법률, 정부 조직, 사법 제도 등 명시적인 형태로 부호화(codify)된다. 이는 개인 간의 일시적인 합의를 넘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다.
- **규범의 전파와 내면화:** 이렇게 부호화된 규범은 교육, 사회화 과정, 문화적 실천 등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파(transmit)되고 내면화(internalize)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규범을 자신의 판단 기준(S3의 '내적 모델' 일부)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되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 **제도화된 판단 구조:** 결국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S9에서 형성된 상호주체적 판단과 S10에서 제도화된 규범을 통해 작동하는, 거대한 '판단 구조'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구조는 개인의 판단을 안내하고 제약하며, 동시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3.4. 계약의 정당성과 지속: 지속적인 Resonance와 Coherence의 요구

사회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확인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판단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시스템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의미있는 Coherence와 긍정적인 Resonance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 **Coherence의 제공:** 사회계약에 의해 설립된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법치(rule of law), 공정한 기회, 안전 보장 등 안정적인 사회 질서(Coherence)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법과 제도가 일관성을 잃고,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 계약의 근본적인 목표였던 Coherence 제공에 실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Resonance의 경험:** 구성원들은 사회 시스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긍정적 Resonance). 또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당하게 '되돌아 올' 때, 시민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 **Resonance 실패와 계약의 위기:** 만약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국가 정책이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며 (Resonance 실패), 사회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부패했다고 인식한다면(Coherence 붕괴), 사회계약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철회될 수 있다. 이는 "The Collapse of Political Judgement" 에서 논의된 정치적 판단의 구조적 붕괴 상황과 유사하며, 심한 경우 사회적 저항이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판단철학적 재구성의 함의

판단철학을 통해 사회계약론을 재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 **계약 동기의 심층적 이해:** 사회계약의 동기를 단순한 이기적 계산이나 생존 욕구를 넘어, PJF의 Indeterminacy에서 비롯된 근원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Coherence와 의미있는 Resonance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판단적 추동력'으로 설명함으로써, 계약의 실존적, 정서적 차원을 부각한다.
- **합의 과정의 구체화:** 계약 형성 과정을 S9이라는 구체적인 인지적, 사회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으로 설명함으로써, '합의'가 단순한 동의 표시가 아니라 의미의 공동 구축과 상호 조율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의 속의 민주주의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
- **정당성의 동태적 조건 제시:** 사회계약의 정당성을 일회적인 합의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Coherence와 Resonance를 제공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국가와 시민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사회 병리 현상 진단의 틀 제공:**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신, 법치주의의 위기 등 현대 사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을 사회 시스템과 구성원 간의 Coherence 또는 Resonance의 붕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정치철학과 인지철학의 연결:** 사회계약이라는 거시적인 정치철학적 주제를 개인의 판단, 의미 형성, 상호작용이라는 미시적인 인지철학적 과정과 연결함으로써, 학제 간 통합적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5. 결론: 사회계약, 공명하는 의미 공동체의 구조적 약속

판단철학의 렌즈를 통해 본 사회계약론은 단순한 권력 이양의 논리를 넘어, PJF의 근원적 불확정성(Indeterminacy)에 직면한 인간이 안정적인 의미 구조(Coherence)와 살아있는 관계 맺음(Resonance)을 갈망하며, 이를 S9을 통해 합의하고 규범과 제도(S10)로써 공동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근본적인 '판단적 약속'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 약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약속의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되돌려받고(Resonance),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정합적인지(Coherence)를 판단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합의(S9)를 통해 그 내용을 수정하고 재구성(Constructivity)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의 진정한 힘은 과거의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구성원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판단은 의미를 가지고 되돌아오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판단철학은 사회계약론을 이처럼 살아있는 '공명하는 의미 공동체'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탐구로 확장시키며,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지평을 연다.

Keyword: Social Contract Theory, Judgemental Philosophy, Political Philosophy, Resonance, Judgemental Triad, Constructivity, Coherence, Pre-Judgemental Field, Indeterminacy, Inter-subjective Resonance, Normative Codification, Legitimacy, Meaning-Making, Structural Ethics, Community Formation, Political Legitimacy